

[교육]

전남대 언어교육원 TESOL과정 첫 개설

어떤 과목 배우나

5개월 과정 250시간 영어교수법 지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이 광주·전남 최초로 TESOL(테솔·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과정을 마련했다.

원어민 강사 7~8명, 영어권 문화 사례 중심 학습 듣기·말하기 등 분야별 맞춤형 수업 진행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듣기, 발음 및 말하기 지도=듣기와 말하기, 발음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읽기 및 쓰기 지도=읽기와 쓰기를 성공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문법 및 어휘 지도=문법과 어휘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준별 영어학습=영어사용능력

■전남대학교 TESOL 프로그램 교육과정

Table with 5 columns: 학기, 개설기간, 개설과목, 학점, 비고. It lists three semesters of courses including English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학습자의 영어능력 수준에 따라 맞춤형의 강의를 수강한다.

▲수업 참관 및 실습=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참관하면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 실습을 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곡성 옥과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참고서 등 1만여권의 장서가 구비된 도서관에서 독서와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졸업생 138명 전원 4년제 대학 100% 진학

곡성 옥과고등학교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전남지역 명문 사립고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20일 옥과고에 따르면 올 해 졸업생들의 대학입시 합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1명, 연·고대 3명 등 30명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합격했다.

외국어 특성화 교육·이동 수업 등 학생-교사 뭉쳐 학력 향상 이끌어

졸업생 138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해 100% 합격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특성화 교육 ▲영어교육원 교육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아카데미 수업 ▲교수 초빙 논술교육 ▲방과후 교육활동과 수준별 이동수업 ▲아침 10분 독서 생활화 ▲최신시설의 기숙사 운영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외국어 교육 특성화를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과목은 대학 교수를 초빙해 매주 수요일 수업을 했고, 영어는 원어민 교사를 초빙, 말하기 중심 교육을 하는 등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

했다. 또 입학이 예정된 성적 우수자를 입학 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의 토익 500점 만점 강의를 8주간 전남대학교 기숙사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과격적인 제도도 운영했다.

성적우수 학생들은 곡성군 중점 사업인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고등학교 자녀교육지원 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아 방과후 학년별 각 2개반씩 모두 6개반(1학년 55명, 2학년 52명, 3학년 23명)을 편성, 광주지역 유명 학원 강사 18명이 하루 3시간씩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 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과목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학력 향상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 격주제로 토요일에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를 비롯 논술 교사를 강사로 매월 첫째 주와 세번째 주 토요일에 3시간씩 논술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수업이 끝난 오후 5시부터 2시간동안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심의 교육활동을 교과별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해 학습능력의 효율성과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이동수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성적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영어 수학을 분리해 각각 별도의 수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1일 4명 등 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 성적우수자의 효율적인 성적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김영신 옥과고 교장은 "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열기로 이어져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 같다"며 "앞으로도 명문 사학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남직업학교에 가면 취업 걱정 끝

지난해 졸업생 82% 취업...1인당 3개꼴 자격증 취득

9년 연속 우수 훈련기관 선정

'지긋지긋한 청년실업'이란 말을 무색케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 화제다. 국비로 운영되는 직업 훈련기관 호남직업전문학교(이사장 김운세)가 노동부로부터 9년 연속 우수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1998년 노동부가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우수기관 선정에 탈락하지 않았다. 지난 2006년에는 평가 전 분야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선, 높은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을 들 수 있다. 호남직업전문학교는 지난해 2

월 졸업생 1천164명의 82.2%인 957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매년 90%에 가까운 취업률을 자랑한다.

1인당 평균 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높은 취업률은 당연한 수지다.

또 다른 이유는 철저한 현장 위주의 교육이다. 호남직업전문학교에 개설된 산업설비학부, 광·정보통신학부, 전기·건축학부, 차량·건설학부, 시트벨학부, O.A디자인학부, 조리제빵학부 등 7개 학부 31개 과정은 다양한 기관 및 산업체와 자매결연 또는 산·학협약을 맺고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더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



호남직업전문학교 조리제빵학부 학생들이 제빵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호남직업전문학교 제공)

해 학교 측은 러시아 국립모스크바 항공기술대를 비롯한 광주과기원, 조선대 사회교육원, 서강정보대, 전남과학대, 원광디지털대 등 대학들과의 자매결연도 맺었다.

이준구 학사운영본부장은 "대학 졸업자가 2~3년 '백수'로 사는 것이 상식처럼 인식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어

림도 없는 얘기"라며 "취업을 위한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려볼 만 하다"고 말했다.

호남직업전문학교는 오는 2월말까지 200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15세 이상 직업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62-605-8008.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 large grid of various advertisements including job openings, real estate, and local services.